
훈민정음 해례본의 결과 속

김주원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훈민정음은 국어학계에서는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다. 이제 의문이 없이 거의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책 자체에 대한 것, 즉 서지적인 측면은 아직 구명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 새로 밝혀진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¹⁾

1. 훈민정음의 걸

세계 기록 유산의 하나로 지정된 훈민정음은 책으로 된 훈민정음 즉 원본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불리는 책이다. 이 책의 정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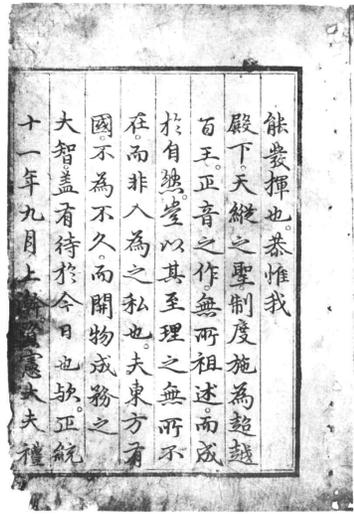
1) 이 글은 『대한토목학회지』(제53권, 2005년)에 연재한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의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름은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일 가능성이 높다. 책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이유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제목이 적혀 있을 첫 장을 포함한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갔고 그 두 장을 기워 넣을 때 『訓民正音』이라고 썼으나 그 뒤의 연구 결과 책의 제목이 『어제훈민정음』일 가능성이 언급된 데에 연유한다. 어쨌든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표지와 앞 두 장이 떨어져 나가서 모두 31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이 지닌 의의 때문이다. 그 의의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글’이라는 우수한 글자를 만든 원리 등 인류 문화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책 자체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을 만큼 당당한 모양이다. 즉 1446년에 책이 출간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560년이 된 책이다. 서양에서 500년 이상 된 책이 현존하는 것은 드물다. 우리가 잘 아는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 성서도 그 즈음(1454년~1460년)의 책인데 현재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나 송아지 가죽에 인쇄된 것이다. 조선의 종이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극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질이 좋았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닥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침법(搗砧法)이라고 하여 방망이 등으로 종이를 두드려 줌으로써 종이의 밀도를 높여 주어서 표면적으로 윤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책은 국가 기관에서 애지중지하며 보관해 온 책이 아니라 ‘한글’ 글자가 겪어온 역사만큼이나 부침을 겪으며 한 민가에서 보통 책으로서 세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점이다.

우선 이 책을 꼼꼼히 관찰하면 우리의 인쇄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서 크게 보아 세종 임금의 글[서문과 예의(例義)] 4장과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즉 해례(解例) 29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임금의 글은 크게 썼고, 신하의 글은 보다 작게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판본 반장[반곽(半廓)]이라고 한다에 전자는 7행에 매 행 11자가 들어가 있으며, 후자 즉 신하의 글은 8행에 매 행 13자가 들어가 있다. 책의 판심도 각각 정음(正音)과 정음 해례(正音解例)로 되어 있다. 글씨를 쓴 이는 당대의 명필

이자 세종 임금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 용(瑢)인데 임금의 글은 방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신하의 글은 단아한 해행서체(楷行書體)로 썼다. 신하들이란 집현전 학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들어 보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의 8명이다(이 중에서 세 명이 사육신이다). 이들 학자를 대표하여 해례의 서문을 쓴 이가 당시 예조 판서(禮曹判書)이자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이었던 정인지이다. 그의 서문은 일반적인 서문과 달리



<사진 1>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 부분

책의 끝에 있는데 임금의 글과 같은 책에 들어 있는 신하의 글이므로 뒤로 간 것이다. 한편 신하의 글에서 임금이나 임금에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에는 자신의 글을 내려쓰거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책의 경우에도 매 행을 한 글자씩 내려서 썼으며, 殿下(우리의 전하), 命(임금의 명령), 大智(임금의 큰 지혜)는 쓰던 행을 비워 놓고 다음 행의 첫머리에 씌으로써(사진 1 참조) 군신 간의 예의를 지키고 있다. 또한 世子라는 글자는 같은 행에서 한 글자를 비우고 쓰고 있다 [정인지는 세자 우빈객(右賓客)이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도 행의 반만 차지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정인지 서문 외에 합자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칠언으로 된 결(訣)에 “하루 아침 지으셨으나(一朝 制作), 신의 조화와도 같으셔서”에서 제작(制作)은 임금이 한 일이므로 행을 바꾸어 시작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훈민정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세종 임금의 글은 서문과 예의로 이루어져 있다. 정인지의 글에서 “계해년(1443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하셨다.”에서 따와서 예의라고 한다. 예의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려 있으며(한자가 한 글자 빠져 있다. 즉 “欲使人人易習”이 “欲使人易習”으로 되어 있다.) 언해(번역)되어 월인석보(月印釋譜, 1459년)의 권두에 실려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랏말싸미 中國에 달아 ……”는 어제 서문을 언해한 것이다. 월인석보는 1449년에 나온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합하여 만든 것이므로 석보상절 제1권이 발견된다면 거기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글, 즉 훈민정음을 만든 후 그 글자를 사용하여 만든 최초의 문헌이 용비어천가(1447년)와 석보상절인 만큼, 새로 만든 글자에 대한 음가와 운용법인 예의를 붙여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서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으로서 매년 한글날이면 기념식에서 한글 학회 회장이 낭독을 한다. 물론 우리말로 낭독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고어체를 버리고 현대어로 바꾸어서 읽는다. 현대어 번역의 한 가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서문에는 세종 임금이 한글을 지은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민족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마침내 제 생각을 언어 내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나는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히어, 날로 씬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박지홍 교수 번역문임).”

예의에서는 자음 17자의 조음 위치와 음가, 그리고 모음 11자의 음가를 밝혀 놓았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글자의 음가를 설명해야 했으므로 한자를 이용하여 예시하였다. 예를 들자면 “ㄱ은 조음 위치는 아음(牙音) 즉, 연구개음이며, 그 음가는 君 자의 첫소리와 같다.”와 같이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모음에 대해서도 “ㅇ은 洪 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어서 종성, 순정음, 병서에 대한 규정, 글자를 쓰는 위치와 순서, 합자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성조에 대

한 규정을 간략히 해 놓았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요점만을 밝혀 놓은 것이다.

다음으로 해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해례 부분은 다섯 가지의 해(解)와 한 가지의 예(例)가 있고 마지막에 정인지의 서문이 붙어 있다. 해례는 세종 임금의 예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해(解)란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이며 한 가지 예(例)란 용자례(用字例)를 일컫는다. 이를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제자해에서 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하여 해설하고, 초성해에서 초성에 대한 해설을, 중성해에서 중성에 대한 해설을, 종성해에서 종성에 대한 해설을 한 후, 합자해에서 초성·중성·종성의 세 글자를 합쳐서 쓰는 방법에 대한 해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용자례에서 실제의 예를 들어 보였다. 새로운 글자를 도입하면서 글자의 음가와 운용법을 해설한 것이다. 각 해의 끝 부분에는 “諫曰(이상에 대한 요결은 이러하다)”이라고 한 후 일곱 글자의 시 형식으로 정리를 하여 요약하였다.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에 대한 서문인데 해석을 상세히 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게 하라고 한 임금의 명에 의하여 해례를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서문에서 정인지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지 않아도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 못 되어 배울 수 있다.”라고 하여 훈민정음을 쉬이 익힐 수 있음과 “비록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울음, 개 짖는 소리라도 다 능히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적을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문을 쓴 연대를 “正統十一年九月上澣”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한글날은 여기에 근거하여 10월 9일로 정하였다.

이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은, 새로 만든 글자인 훈민정음 즉 한글을 소개하고 쉽게 익혀 쓰게 할 목적에서 쓰인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현대인으로서 읽기가 쉽지 않다. 단 순히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책은 심오한 철학과 글자의 운용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우주의 근원은 오직 음양과 오행뿐이다. 곤의 세계와 복의 세계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났고, 움직이고 멎고 한 후에 음과 양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니 무릇 어떤 생물이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음과 양의 이치를 버리고서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에도 모두 음과 양의 이치가 있겠는데, 다만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였을 뿐이다.”(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 <制字解>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지학적·언어학적인 사실만 말해왔지만 이 인용문을 보면 이것은 태극(太極)과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운운하는 철학적인 내용이 되고 만다. 물론 철학적 내용 그 자체를 전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언어·음성·글자도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송(宋)의 성리학(性理學)이다. 송의 성리학은 명(明)의 영락제에 이르러 『성리대전(性理大全, 1415년)』 등으로 집대성되었는데 이 책이 세종 원년(1419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학문을 좋아한 세종은 이 내용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에서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聲音’을 특히 중시한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소옹은 수리로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데 성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자이다.

“성음의 수를 안 뒤라야 만물의 수를 관찰할 수 있고, 성음의 이치를 안 뒤라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皇極經世書』

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훈민정음 制字解는 철학적 내용을 바탕에 둔 글자 제정의 원리를 보인 것이다. 몇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사람이 소리를 가짐은 오행(五行)에서 비롯된다. …… 목구멍[喉]은 깊숙하며 젖어 있으니 물[水]에 해당된다. 혀[舌]는 날카로우며 움직이니 불[火]에 해당된다. …… 이[齒]는 단단하며 끊으니 쇠[金]에 해당된다.” <制字解>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떠나서 세종이 당시의

세계관과 철학에 기초를 두고 만물의 생성과 운행 원리에 맞춘 완벽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책은 새로 만든 글자인 훈민정음 즉 한글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각 글자가 어떤 음가를 지니고 있고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쓴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각 글자가 쓰인 예를 들어 보임으로써 바로 익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책임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2. 훈민정음의 책 모양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훈민정음은 원래의 책과는 모양이 상당히 달라졌다. 물론 첫 두 장을 기워 넣은 것부터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책의 크기가 달라진 것과 제책의 면에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쟤 바에 의하면 훈민정음의 책의 크기는 세로 29.3cm, 가로 20.1cm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책의 원래 크기는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아래위가 상당히 잘려 나간 책이다. 사실 잘려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문에 손상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잘려 나갔으므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못 된다. 그러나 책의 원래 모습이 현재의 것보다는 더 컸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여백이 넓으면 책의 품격이 달라진다. 책의 아래위, 즉 천지(天地)가 잘려 나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뒷면의 붓글씨이다. 뒷면 글씨란 책이 오래되면서 접은 부분[중봉(中縫)]이 헤어지면서 열려서 책의 뒷면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쓴 글씨를 말한다. 종이가 귀하므로 뒷면의 백면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일례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제자해 부분의 사진(<사진 2> 참조)을 보면 뒷면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판독되지는 않지만 첫 글자가 모두 잘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랫단의 글자들도 모두 잘려 나가 있



<사진 2> 제자해(正音解例 1a)(문화재청 홈페이지)

음을 볼 수가 있다. 사진을 보면 자명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침눈의 위치이다. 침눈이란 책을 묶기 위하여 뚫는 구멍을 이르는 것인데 위의 <사진 1>을 다시 보면 오른쪽에 희게 해진 부분과 검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침눈이다. 그중에서 검은 점의 일부가 현재의 책을 묶기 위한 침눈이며 책의 맨 위와 맨 아래에 보이는 희게 해진 부분은 이전에 사용

된 적이 있는 침눈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전에 사용된 침눈의 위치가 각각 너무 위로, 너무 아래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눈은 책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1센티미터의 여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원본 훈민정음은 원래의 상태보다 책 크기가 작아졌다. 현재로서는 원래의 책 크기를 알 수가 없다.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은 재단(裁斷)된 시기이다. 물론 절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뒷면 글씨를 쓴 이후에 아래위 부분을 잘랐다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봉이 해진 이후에 글씨를 썼고, 글씨를 쓴 후에 재단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대에 재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접한 이후에 책을 매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1940년 이후에 원본의 아래위가 잘려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접을 한 후 재단을 하더라도 원래의 책 종이에선 칼이 가지 않도록 책의 바깥 면을 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책이 도려내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제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훈민정음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제책되어 있다. 즉 네 개의 침눈을 뚫고 실을 넣어 책을 꿰맨 것이다. <그림 1>은 책의 표지와 훈민정음 영인본의 사진

부분을 재단하여 원래의 모양을 살려 둔다. 셋째 원래의 오침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한다.

3. 훈민정음의 속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는 사람의 몸과 소의 머리를 하고 있다. 나무를 깎아 호미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호미 자루를 만들어 비로소 밭 갈기를 가르치고, 온갖 풀을 맛보아 비로소 병 고치는 약을 만들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낮 동안 시장을 만들어 서로 교역하는 것을 가르쳤다.

치우(蚩尤)는 구름으로써 벼슬을 기록하여 운사(雲師)를 하고, 풍후로써 정승을 삼았다. 해, 달, 별의 모양을 보고 기록하는 별관원을 두고, 북두별 서는 데를 알아 갑자(甲子)를 만들었으며 산수(算數)와 풍류 곡조를 만들었다. 빛난 옷을 만들어 귀한 이와 천한 이를 구별하며, 배와 수레를 만들었고, 들을 그어 고을을 나누었으며, 먼 오랑캐 나라에서 조공을 하였다.

요 임금이 말하되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고, 부자면 일이 많고, 장수하면 욕이 많다. 봉인이 말하되 하늘이 만민을 내심에 반드시 소임을 주시니 아들이 많으면 소임을 주면 어찌 두려움이 있으며, 부자면 사람들에게 나누면 어찌 일이 있으며,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만물이 다 창성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어진 덕을 닦아 한가한 데 나갔다가 천년 만에 세상을 버리고 신선이 되어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이르면 어찌 욕이 있겠습니까?

이계왕(履癸王)에 이르니 이름이 걸(桀)이다. 탐하고 모질고 힘이 능히 쇠고리를 펼 수 있었다. 매희[末喜]를 총애하여, 말하는 바를 다 좇아 구슬궁[瓊宮]과 구슬대[瑤臺]를 만들고 백성을 재물을 뺏어 고기 산과 포육 숲을 만들고 술 못에 배를 다니게 하고[酒池肉林] 술 찌꺼기 언덕이 가히 십 리나 되었다. 백성이 크게 무너지므로 탕(湯)이 하(夏)를 치니 걸이 달아나 죽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 웬 중국 역사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해례본의 뒷면에 빼곡히 적혀 있는 붓글씨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해례본은 외관으로 말하자면 볼품이 없다.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가 기워 넣은 데다가 책의 귀퉁이는 세월의 흐름을 말해 주는 듯 닳았고, 결정적인 것은 책의 뒷면에 붓글씨를 잔뜩 써 놓아서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한다. 붓글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책의 뒷면에 글씨가 있게 된 연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의 책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목판본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글씨가 필요한데 그 글씨를 쓴 종이를 판하본(板下本)이라고 한다. 그 판하본을 판목에 거꾸로 붙이고 각수(刻手)가 새긴다. 글씨와 계선(界線)만 남기고 유계(有界)의 경우 나머지 다 파낸다. 대개 목판

한 장에는 요즈음 식으로 하면 두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한 장이라고 한다. 판목의 한가운데에는 판심(版心)이라고 하여 책의 제목과 장차(張次)가 새겨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목에 먹을 골고루 묻히고 종이(대개는 닥종이이다)를 대고 찍어 낸다. 먹과 종이만 있으면 몇백 장이건 몇천 장이건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장을 인쇄한 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제책이라고 한다. 종이의 가운데를 접은 것을 모두 모은 후 표지와 함께 송곳으로 구멍을 다섯 개 뚫어서 종이 끈이나 색실 끈으로 튼튼히 맨 후에 표지를 댄다. 표지는 장지라고 해서 종이를 몇 겹 붙이고 치자물 등을 들고 연화문 사방문 등의 무늬 판으로 눌러 돈을무늬를 넣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한 권의 책이 완성된 것이다.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므로 책 양면에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것은 요즈음 책과 같지만 접힌 채 있으므로 인쇄된 뒷면은 백지 상태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종이의 질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가운데의 접은 부분인 중봉(中縫)이 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접은



<사진 3> 훈민정음 해례본(해례 3b)의 뒷면 붓글씨. 한자를 피해서 계선 위에 썼다.

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고 가정하면 책은 인쇄면 두 페이지 뒤에 백지면 두 페이지, 그 뒤에 다시 인쇄면 두 페이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전에는 종이가 귀했으므로 이 백지면에 글씨를 써넣는 경우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에 간행된 이래 어떤 이유로 책의 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드러난 백지면에 글씨를 써넣은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책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첫 두 장을 실록 등을 참고 하여 안평 대군 글씨체를 모방해서 썼으며(이 과정에서 글씨 두 자를 잘못 적었다) 붓글씨가 잔뜩 적힌 뒷면을 가릴 겸 책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배접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뒷면 글씨는 가렸으나 인쇄면으로 배어 나온 붓글씨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두었다. 이후 1946년에 한글 반포 5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어학회(현재의 한글 학회)에서 영인본을 내었는데 책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하여 수정을 가하였으나 의욕이 넘친 나머지 원본에 있던 판심이나 방점 등을 고치고 지우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어서 1957년에 통문관(通文館)에서 수정하지 않은 사진판 영인본을 내었는데 이것이 원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판본이다. 그러나 뒷면의 붓글씨가 거꾸로 보여서 어지러운 책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뒷면의 붓글씨가 앞면의 인쇄된 부분을 피하여 주로 빈 공백이나 계선 상에 적혀 있으므로 앞면 인쇄면의 내용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57년 원본의 영인본이 공개된 이래에(원본은 전시회 등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책의 특성상 퍼진 채 전시되므로 뒷면을 넘겨 볼 수가 없다) 뒷면의 붓글씨 자국은 훈민정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어학자, 문헌학자를 비롯한 국학자에게 상처이자 아픔이었다. 더구나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뒷면을 배접해 버려서 내용을 알 수도 없었기에 숙제이기도 했다. 그런 채로 50년 가까이 흘러온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면이며 위에서도 말했듯이 뒷면에 붓글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면의 내용이 거의 손상당하지 않고 읽히므로 뒷면 글씨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뒷면의 글씨는

나름대로 이 책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책 이용 방법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할 뿐더러 그 자체로 국어사 자료이므로 구명될 필요가 있다. 이제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픽 소프트웨어(포토샵)를 이용하여 뒷면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원본을 직접 보거나 복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상의 자료는 뒷면 붓글씨가 어지럽게 배어나온 1957년 영인본이다. 이것을 스캔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한 후 불러내어 ‘수평으로 뒤집기’를 하면 인쇄면의 한문이 거꾸로 되며 희미한 붓글씨가 나타난다. 이것을 명도와 채도 대비 등을 조정하면 붓글씨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해진다. 앞면만 볼 때는 못쓴 글씨처럼 보였는데 바로 놓고 본 붓글씨는 달필이었으며 그 내용 중의 몇 부분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의 앞부분을 베껴 쓴 것이었다. 위에서 보인 것이 그 내용의 일부이다.

『십구사략언해』는 이름 그대로 『십구사략』을 언해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열아홉 개 왕조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있던 『십칠사략』에 송(宋)사를 더한 것이 『십팔사략』이며 여기에 원(元)사를 더한 것이 『십구사략』이다. 이 책은 조선조 세종 때에 수입되었으며 이후에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구사략언해』이다.²⁾ 이 책은 중국의 역사를 쉽고 간명하게 서술해 놓았으므로 왕실과 양반가의 자제 교육용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사진 4> 위의 그림을 뒤집어서 본 것. 한글이 바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십팔사략』이 더 잘 알려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선조 초기 세종조 이후부터는 『십구사략』만 읽혔다. 이 책은 1930년대까지 출판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원본 훈민정음을 소장하고 있던 집안의 한 선비가 어렵사리 『십구사략언해』를 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문본은 여러 차례 출판되어 구해 볼 수 있었지만 언해본은 별로 출판된 적이 없어서 귀한 책이었다. 옛날에는 책을 보고 싶는데 살 수 없으면 그 책을 빌려서 베끼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이 또한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한 예로 옛날의 편지를 보면 종이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여백 없이 빼곡히 썼던 것이다. 이 집안에도 종이가 귀했던 모양이다. 책의 내용을 베끼려고 궁리하던 끝에 원본 『훈민정음』이 오래되어 해져서 뒷면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이 『십구사략언해』를 베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원본 훈민정음의 뒷면은 붓글씨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글쓴이가 세어 보니 대략 15,000자 정도가 적혀 있었다. 일반적으로 책을 베껴 쓸 때에는 그대로 똑같이 쓰지 않고 베낀 이의 생각과 언어가 반영된다. 이 책의 경우에도 베낀 이의 방언 즉 경북 안동 방언이 잘 나타나 있다. 어떤 판본을 보고 베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한글에 나타난 방언 형태 즉 경상도 북부 방언을 보아서 베껴 쓴 시기는 18세기경의 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0년에 우리에게 알려질 때에는 『십구사략언해』를 베껴 쓸 때만 해도 있었던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가고 해진 뒷면에 한글이 빼곡히 적힌 알팍하고 너털너털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상 유례가 드문 창제 문자인 한글 즉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 글자의 제작 원리와 음가와 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창제된 문자가 거의 없는 데다가 문자의 제작자가 제작 원리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책의 가치는 무한하다. 즉 우리 민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사에 깊이 남을 쾌거인 것이다. 그러나 책이 세상에 알려진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정작 이 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까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책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이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